

장애이해교육이 비장애아동의 장애아동에 대한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Educ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Non-disabled Children's Attitude to Accept Disabled Children

유용식*, 권순신**

세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

Yong-Shik Yoo(yoos@semyung.ac.kr)*, Sun-Sin Kwon(kss1277@nate.com)**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이해교육이 비장애아동의 장애아동에 대한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실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장애이해교육이 비장애아동의 장애아동에 대한 학교생활과 개인생활 수용태도는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장애이해교육이 시간을 무조건 많이 제공하기보다는 4주라는 짧은 시간이라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사회생활 수용태도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장애아동들의 사회생활에 대한 수용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비장애인의 잘못된 장애인식이나, 장애에 대한 무지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접근방식의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 중심어 : | 장애이해교육 | 비장애아동 | 장애아동 | 수용태도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s of educ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non-disabled children's attitude to accept disabled children in order to use it as foundational data to practice successful integrated education.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 educ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positively changed non-disabled children's attitude to accept disabled children's school life and personal life. This plainly shows that educ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effective regardless of time consumed even with the short time of four weeks here. However, it did not exert positive effects on their attitude to accept social life. Therefore, it is needed to develop education program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constantly with various approaches in order to get rid of non-disabled people's wrong recognition on disability and also ignorance about disability.

■ keyword : | Educ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Non-disabled Children's | Disabled Children | Attitude to Accept |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행복하게 살아갈 권

리가 있으며, 개인은 사회구성원으로 사회집단속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며 살아가고, 이러한 개인의 권리를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장애인 또한 인간이며 사회구성원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하지만

* 본 연구는 제천장애인복지실천연구 제3호에 게재된 것을 수정·보완한 것임.

접수번호 : #130214-004

접수일자 : 2013년 02월 14일

심사완료일 : 2013년 03월 12일

교신저자 : 유용식, e-mail : yoos@semyung.ac.kr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과 편견 속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그로 인한 편견이 장애인으로 하여금 더 어렵게 살게 하고 그들이 자연스럽게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오는 것을 방해한다고 지적하면서 완전통합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해결과제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 없는 이해'라고 강조하고 있을 뿐 아니라[1], 장애아동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지표로서 일반아동의 장애아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 의해 좌우된다는 연구 결과[2][3]와 함께 일반아동의 수용태도를 성공적인 통합 교육을 위한 결정적인 요인의 하나로 보게 되었다[4-6].

일반아동들이 동정과 두려움으로 장애아동을 인지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환경과 경험을 통해 학습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학습된 부정적인 태도를 감소시킴으로써 일반아동들에게 장애아동과 서로 상호작용하려는 의지를 증가시키고 동시에 긍정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7].

이처럼 태도는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하여 학습되게 되는데 한 번 잘못된 태도를 지니게 되면 잘못된 태도에 대한 정보를 나중에 알게 되었다 하여도 그 정보마저도 앞서 지니고 있었던 잘못된 태도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8]. 즉, 조기에 습득된 어떤 태도는 평생 동안 지속되기도 하며 또 잘 지워지지도 않는다[9]. 따라서 어려서부터 장애아동에 대한 바른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 장애아동을 위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장애아동의 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통합은 물리적인 배치 하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일반아동의 장애아동에 대한 태도가 통합의 성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일반아동의 장애아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형성을 위해서는 조기에 장애아동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장애이해교육이 필요하다[10].

그러나, 장애이해교육은 아동기부터 타인을 탐색하는 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개성을 가진 인간을 이해하는

가운데, 장애이해는 물론 장애에서 오는 부정적인 느낌을 편견이나 고정관념으로 고착하지 않고 아동 자신의 건전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도록 영향을 미친다. 아동기에 어떤 형식으로든 장애에 대한 편견이 형성되면 그것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장애에 대한 차별은 일반아동으로 하여금 장애아동에 대한 탐색의 기회인 상호작용을 꺼리게 하여 결국에는 다양한 타인의 세계를 탐색함을 통한 자신의 내면세계를 넓혀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막게 된다[11].

따라서, 장애이해교육은 일반아동이 장애를 가진 또래를 바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장애로 인한 차이는 또 다른 하나의 개성으로 여길 수 있도록 이끄는 교육이다. 또한 그것은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자신의 편견을 막고 더 나아가 또래 가운데 형성된 잘못된 고정관념을 예방하며 서로 다른 생활방식과 의견 등을 존중하여 보다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형성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일반아동들이 장애에 대한 부정적 관념이나 편견을 가지기 전에, 인간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용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 성인이 되어서도 장애인과 자연스럽게 조화로운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통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11]. 이에 비장애아동들이 다양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생활하는 가운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보아, 본 연구에서는 장애이해교육이 비장애아동의 장애아동에 대한 수용태도 변화를 알아보는 것은 그 의의가 매우 높다고 하겠다.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통합교육 현장에서 비장애아동들에게 장애이해교육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아동에 대한 수용태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며, 이를 통해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증진시켜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실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장애이해교육은 비장애아동의 장애인에 대한 학교생활 수용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둘째, 장애이해교육은 비장애아동의 장애인에 대한 개인생활 수용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장애이해교육은 비장애아동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생활 수용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장애이해교육의 개념 및 필요성

장애이해교육은 장애이해 및 장애체험 위주의 교육을 통해 비장애아동이 장애아동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직접 체험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나아가 장애예방과 사회적 장애를 제거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최근 관련기관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 교육이다[7].

태도는 특별한 사람, 집단, 이념, 사건 또는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반응을 보이는 경향성으로 대상에 대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된 신념이다. 이러한 태도는 모든 행위의 근거가 되고 또 행위는 태도를 형성하게 되며, 이는 자아인식 발달이 시작되고 타인과 자신을 구분하는 것을 배우는 3-4세경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여 이미 갖고 있는 지식의 구조에 새로운 경험과 정보를 조직하고 구조화하면서 계속적으로 변화한다. 또한, 태도는 새로운 경험과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므로, 비장애아동이 장애아동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 역시 긍정적으로 변화되도록 수정 가능할 것이다[2].

일반아동의 장애에 대한 태도 발달은 문화적 가치, 사회화 과정, 장애아동의 부정적 행동에 대한 일반인의 반응에 영향을 받는다. 장애아동에 대한 편견은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부모의 양육 태도에서부터 비롯되며, 이는 아동이 학령기가 되었을 때 일반아동과의 상호작용만 선호하도록 작용하여 결국 장애아동을 거부하게 만들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태도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없이는 변화하기가 어려운

데 초등학교 교실은 태도 형성 교육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장소로 이는 초등학교 시기는 가정에서 형성된 기존 태도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강화되거나 변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12]. 그러므로, 비장애아동이 장애아동에 대해 부정확한 지각과 편견을 지닌 성인으로 성장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장애아동에 대한 태도가 고정되기 전인 초등학교 시기에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태도가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꼭 필요하다.

따라서, 장애이해교육은 장애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거나 학습시킴으로써 장애아동에 대해 이해와 태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이해 중심활동과 직접 장애아동을 만나 상호작용 하거나 모의장애체험활동을 통해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와 태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체험중심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장애이해교육은 장애에 대한 정보제공, 유명 장애인을 주인공으로 한 독서 및 집단 토의, 장애인 관련 영화나 애니메이션 관람 등의 시청각교육, 가설적인 사례 제시를 통한 문제해결 방법 모색 등이 있으며, 체험중심활동으로는 장애인과의 직·간접적 접촉, 모의장애체험활동 등이 있다.

이처럼 일반아동들에게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교과 과정을 통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이해교육이 필요하며, 일반아동들 뿐만 아니라 학부모 및 사회 전반에 걸친 장애이해교육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장애이해교육과 수용태도와의 관계

장애이해교육이 장애아동에 대한 비장애아동의 수용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8주간 장애이해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도와 지지 태도 점수가 긍정적으로 증진된 것으로 나타났다[13]. 또한 장애이해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학년 간 장애아동 수용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 아울러 4주 동안 장애인이면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소개, 장애아동을 지도하는 교사 강연, 인터뷰, 그리고 장애체험 등으로 구성된 교육을 받은 후 장애아동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보고하였다[15].

Clore와 Jeffrey(1972)[17]의 연구에 의하면 휠체어를 타고 길을 다니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경험한 집단 뿐만 아니라 휠체어와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관찰한 집단에서도 장애아동에 대한 긍정적인태도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태도가 지속되었다고 하였다. Voeltz(1980)[3]은 중증장애학생과의 다양한 수준에서의 접촉을 하고 있는 초등학교 2,392명을 요인분석을 통해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과 중증장애 또래와 가장 많은 접촉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장애학생들에 대한 가장 많은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비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시작 전에 장애인과의 경험과 그들에 대한 느낌이나 의견들을 토의하게 했을 때 수용태도가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 때 교사의 역할은 평가자가 아니라 활동의 목표를 분명하게 해주고 잘못된 개념을 수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17]. 또한, 집단토의가 장애아동에 대한 비장애아동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집단토의가 구조화되지 않았을 때는 효과적이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또래 준비 훈련 프로그램의 한 요소로 사용하려면 구조화된 프로그램이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2].

장애에 대한 영화·비디오·책을 읽는 것도 일반아동들의 장애아동들에 대한 수용태도를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였다[18]. 또한, 장애아동에 관한 영화를 시청한 후 일반아동들이 휠체어를 탄 학급동료들을 덜 괴롭히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보고하였다[19]. 차수연(2002)은 일상생활에서 장애를 극복하고 잘 적응하며 살아가는 내용의 '오토다케'의 생활이 담긴 비디오를 보여줌으로써 장애아동에 대한 일반아동들의 태도가 효과적으로 변화되었다고 하였다[20].

그러나, 장애이해교육이 반드시 일반아동들에게 긍정적인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결과도 있었다. 장애아동을 직접 장애이해 프로그램의 패널로 소개하거나, 장애아동과 관련된 복지시설이나 기관을 방문하는 방법 등의 장애아동들과 직접적인 접촉이 반드시 긍정적인 태도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연구뿐만 아니라 더 부정적인 결과를 갖게 되거나 이전의 고정관념을 강

화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21]. 신순자 외(2010)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 집단 40명과, 장애체험활동 집단 40명을 대상으로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이해교육과 장애체험활동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장애수용태도를 변화시키는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7]. 또한, 수반되는 중재 없이 직접적인 접촉만으로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지 않는다고 하였다[22][23].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충청북도 제천시 소재의 S초등학교 5학년 2개 학급에서 학급당 24명씩 초등학교 48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1개 학급 24명은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는 실험집단으로 설정하고, 1개 학급 24명은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통제집단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표 1. 연구대상

구 분	학년	학생수	총계
실험 집단	사전 검사	5학년	24
	사후 검사	5학년	24
통제 집단	사전 검사	5학년	24
	사후 검사	5학년	24

2. 연구계획 및 절차

2.1 연구계획

본 연구에서는 장애이해교육이 비장애아동의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장애이해교육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비장애아동의 수용태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였다. 연구기간은 2011. 9. 15-10. 19일까지 총6주간이며, 수용태도 측정 설문조사를 통하여 사전, 사후검사 결과를 비교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수용태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연구설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연구설계

구분	사전	실험처치	사후
R ₁	O ₁	X ₁	O ₂
R ₂	O ₃		O ₄

R₁ : 실험집단
 R₂ : 통제집단
 O₁, O₃ : 사전검사(수용태도 검사지)
 O₂, O₄ : 사후검사(수용태도 검사지)
 X₁ : 장애이해교육 실시

2.2 연구절차

2.2.1 사전검사

사전검사는 장애이해교육이 비장애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기 1주 전(2011. 9. 15) 같은 시간 각 학급에서 양 집단에게 수용태도 검사지를 측정하였다.

2.2.2 교육실시

본 연구에서의 교육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실시 한 사전검사 1주후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학급 재량시간을 통하여 총 4회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장애에 관한 기초이론교육 및 시청각교육(9.22), 장애체험(9.26), 장애관련기관견학(10. 5), 소감문 쓰기(10. 12)로 1회기 40분으로 진행하였다.

2.2.3 사후검사

사후 검사는 장애이해교육 종료 일주일 후(10. 19)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게 같은 시간 각 학급에서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는 사전검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도구는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아동의 수용태도를 검사하기위한 실험도구로 장애이해교육에 관련한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측정도구는 수용태도 검사를 사용하였다.

3.1 장애이해교육

본 연구에서 적용한 장애이해교육은 이상애 외(2004), 변찬석 외(2005), 신순자 외(2012) 등이 활용했

던, 장애에 관한 기초이론교육 및 시청각교육, 장애체험, 장애관련기관견학, 소감문쓰기 등으로 구성하였다. 장애이론교육은 장애개념 및 유형, 장애발생 원인 및 예방법, 장애를 극복한 사람들에 대한 시청각교육 등으로 구성하였다. 장애체험은 지체장애와 시각장애 체험으로, 지체장애 체험은 휠체어체험 및 장애인 리프트 차량 탑승 체험 등이며, 시각장애 체험은 눈을 가리고 흰 지팡이를 사용하여 목표지점 돌아오기 및 2인 1조로 편성해 시각장애 체험과 안내자의 역할을 번갈아 체험하도록 구성하였다. 장애관련기관견학은 장애인종합복지관 견학 및 장애인 편의시설 체험으로 구성하였다. 소감문쓰기는 그동안 학습했던 내용을 상기하며 소감을 작성하고 느낌을 나누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3.2 장애아동에 대한 수용태도 측정 척도

장애아동에 대한 비장애아동의 수용태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문진아(2002)[24]가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학교생활 10문항, 개인생활 10문항, 사회생활 10문항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리커트 척도(Likert Scale)이다. 응답자의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을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그렇다’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태도가 긍정적인을 나타낸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82 점이었다.

4. 자료처리

본 연구는 장애이해교육이 비장애아동의 수용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장애이해교육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아동의 수용태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장애이해교육 실시 전과 후의 수용태도를 비교분석하였으며, 자료는 SPSSWIN Versio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는 연구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실험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실험결과분석에 앞서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 사전검사자료 분석을 통하여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장애수용태도 사전검사의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검사에 대한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장애수용태도 검사 사전 동질성 검사를 보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장애수용태도 사전 동질성 검사

구 분	N	평균	표준 편차	t	p	
학교 생활	실험	24	3.2250	.49978	-1.143	.625
	통제	24	3.4083	.56716		
개인 생활	실험	24	3.1625	.49940	-5.47	.590
	통제	24	3.2542	.62553		
사회 생활	실험	24	3.6875	.54638	-1.171	.254
	통제	24	3.8875	.53431		

1. 장애아동에 대한 비장애아동의 학교생활 수용태도 변화

집단에 따른 학교생활 장애수용 정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집단에 따른 장애수용태도 사후조사 차이를 보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따른 학교생활 장애수용태도의 차이[t=4.088, p<0.05]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이해교육이 비장애아동의 학교생활 수용태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학교생활 장애수용태도 사후조사 차이

구 분	N	평균	표준 편차	t	p	
학교 생활	실험	24	3.9375	.34868	4.088	.000
	통제	24	3.2917	.72287		

또한 학교생활 수용태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전·사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실험집단 사전·사후 차이[t=5.616, p<0.05]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제집단의 차이[t=.811, p>0.05]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험집단의 경우 장애이해교육 실시 후 학교생활에서의 장애수용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나, 통제집단에서는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학교생활 수용태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전사후에 따른 차이

구 분	N	평균	표준 편차	t	p	
실험	사전	24	3.2250	.49978	-5.616	.000
	사후	24	3.9375	.34868		
통제	사전	24	3.4083	.56716	.811	.426
	사후	24	3.2917	.72287		

[그림 1]에서 양 집단은 사전에 실험집단이 3.2, 통제집단이 3.4로 평균치가 분석되었으나 장애이해교육 후 실험집단의 학교생활 수용태도가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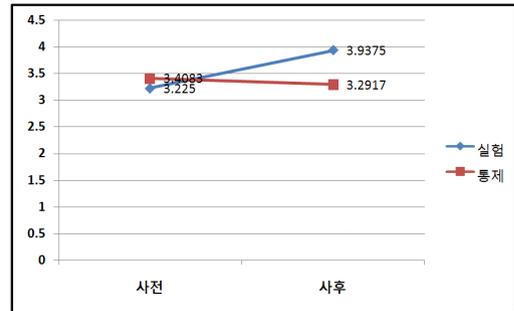


그림 1. 실험·통제집단 학교생활 수용태도 사전·사후 비교표

2. 장애아동에 대한 비장애아동의 개인생활 수용태도 변화

집단에 따른 개인생활 장애수용 정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집단에 따른 장애수용태도 사후조사 차이를 보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따른 개인생활 장애수용태도의 차이[t=2.693, p<0.05]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이해교육이 비장애아동의 개인생활 수용태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집단에 따른 개인생활 장애수용태도 사후조사 차이

구 분	N	평균	표준 편차	t	p	
개인 생활	실험	24	3.7833	.42801	2.693	0.013
	통제	24	3.2417	.79341		

또한 개인생활 수용태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전·사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실험집단 사전·사후 차이[t=-4.814, p<0.05]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통제집단의 차이[t=.068, p>0.05]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험집단의 경우 장애이해교육 실시 후 개인생활에서의 장애수용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나, 통제집단에서는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개인생활 수용태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전사후에 따른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실험	사전	3.1625	.49940	-4.814	.000
	사후	3.7833	.42801		
통제	사전	3.2542	.62553	.068	.946
	사후	3.2417	.79341		

[그림 2]에서 양 집단은 사전에 실험집단이 3.1, 통제집단이 3.2로 평균치가 분석되었으나 장애이해교육 후 실험집단의 개인생활 수용태도가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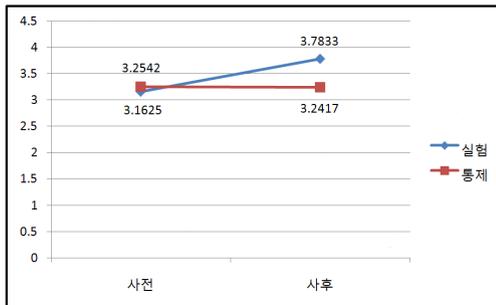


그림 2. 실험·통제집단 개인생활 수용태도 사전·사후 비교표

3. 장애아동에 대한 비장애아동의 사회생활 수용태도 변화

집단에 따른 사회생활 장애수용 정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집단에 따른 장애수용태도 사후조사 차이를 보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따른 사회생활 장애수용태도의 차이[t=1.489, p>0.05]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집단에 따른 사회생활 장애수용태도 사후조사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사회생활	실험	4.0458	.59489	1.489	.150
	통제	3.7542	.77571		

또한 사회생활 수용태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전·사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실험집단 사전·사후 차이[t=-2.194, p<0.05]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통제집단의 차이[t=.991, p>0.05]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험집단의 경우 장애이해교육 실시 후 사회생활에서의 장애수용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나, 통제집단에서는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사회생활 수용태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전사후에 따른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실험	사전	3.6875	.54638	-2.194	.039
	사후	4.0458	.59489		
통제	사전	3.8875	.53431	.991	.332
	사후	3.7542	.77571		

[그림 3]에서 양 집단은 사전에 실험집단이 3.6, 통제집단이 3.8로 평균치가 분석되었으나 장애이해교육 후 실험집단의 사회생활 수용태도가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학교생활이나 개인생활만큼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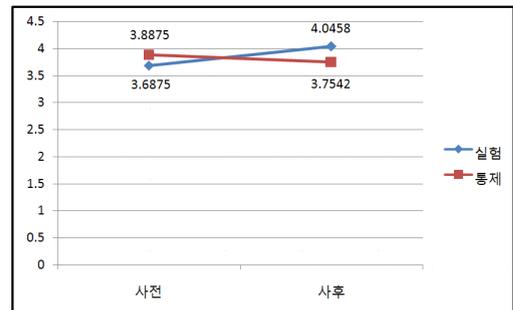


그림 3. 실험·통제집단 사회생활 수용태도 사전·사후 비교표

4. 논의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학교생활, 개인생활, 사회생활의 수용태도가 향상 될 것이라는 연구문제에 대한 검증으로 사전·사후 설문지 t검증 분석 결과, 학교생활과 개인생활은 $p < 0.05$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생활 수용태도에는 $p > 0.05$ 로 유의미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4회기의 장애이해교육이 비장애아동의 학교생활 및 개인생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이해교육이 무조건 시간을 많이 제공해야 한다는 통상적인 생각에 반하는 것으로, 짧은 시간이라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존의 변찬석·박미애(2005), 우해숙외(2004), Lazer외(1971)의 연구와 일치한다.

그러나 사회생활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이해교육이 사회생활부분의 미흡, 수용태도 설문지의 문항 신뢰도, 실험집단·통제집단 외부 변화 등 다양한 변수에 대한 가설검증이 부족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파악하여 연구 설계를 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장애이해교육이 비장애아동의 장애아동에 대한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이해교육은 비장애아동의 장애아동에 대한 학교생활 수용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장애아동이 학령기에 가장 많이 생활하는 곳은 학교이다. 하루 일과 중 오전·오후까지 학교에서 생활하며 비장애아동과 같이 생활한다. 장애이해교육이 장애아동에 대한 비장애아동의 수용태도 변화는 교육기관과 관련유관기관에서는 주목해야 할 점이다.

둘째, 장애이해교육은 비장애아동의 장애아동에 대한 개인생활 수용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병원 같이가기, 어려운 일 도와주기, 생일날 초대하기, 음식

나눠 먹기 등 다양한 부분에서의 변화를 볼 수 있었다. 특히, 중증장애인들은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인하여 비장애인들과 같이 생활하는데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장애이해교육을 통하여 비장애아동들의 개인생활의 수용태도가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장애이해교육은 나이가 어릴 때부터 실시하여 올바른 장애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애이해교육은 비장애아동의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생활 수용태도 변화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번 연구에 활용된 장애이해교육은 장애인 개인에 초점을 둔 교육자료로 작성되어 비장애아동의 사회생활 수용태도 변화를 유도하는데 부족하였다. 비장애아동들의 사회생활에 대한 수용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장애이해교육의 내용보다 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심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후속되어야 할 연구 과제를 몇 가지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장애이해교육이 비장애아동의 학교·개인생활에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검증되었다.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아동의 수용태도 변화의 효과가 지속성 유지 부분에 대한 입증은 부족하다. 추후 장애이해교육 효과의 지속성 유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결과 비장애아동의 사회생활 수용태도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없었다. 본 연구의 교육 자료는 장애인에 초점을 두어 제작한 것으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개인·사회·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자료를 활용한 장애이해교육 자료가 제작되어야 한다. 교육기관 및 관련유관기관에서는 장애이해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비장애인의 잘못된 장애인식이나, 장애에 대한 무지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접근방식의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본 연구는 제천지역 내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장애이해교육이 유아·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일반

성인 등 다양한 대상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여 대상별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접해보지 못했거나 알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아집이나 편견을 가지고 바라본다.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에 대한 생각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와 다를 것이다.”, “장애가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할 것이다.”, “장애인은 우리가 보살펴 줘야 할 사회적 약자이다.” 이러한 편견을 만드는 것은 장애에 대한 무지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교육은 학습효과가 뛰어난 유·소년기부터 시작하여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속에 장애인이 사회속에 한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및 지역 내 관련기관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이 장애이해교육 및 장애인식 프로그램이 비장애아동의 장애아동의 전반적인 수용태도를 알아보는 연구가 대부분이었지만, 본 연구는 수용태도를 구체적으로 학교생활·개인생활·사회생활로 세분화하여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변인을 엄격하게 통제할 수 있는 실험실 상황과는 달리 여러 변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일반학교 교실생활 상황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 태도는 개인의 윤리·도덕적 가치 개념이며 개인의 성향에 따라 본 설문지에서 제시한 문항에 장애아동에 대한 생각을 일반화시키는데 제한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지역 내 일반초등학교 5학년 2개 학급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의 결과를 전체 아동에게 일반화하여 해석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습득된 비장애아동의 이해 및 수용태도 변화의 지속성 유지에 대한 검증이 어려운 것에 제한점을 갖는다.

참 고 문 헌

- [1] 김정권, *특수아동의 이해와 교육*, 박학사, 2004.
- [2] J. Gottlieb, H. Corman, and R. Curci, “Attitudes toward mentally retarded children,” In R. L. Jones(Ed), *Attitudes and attitude change in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pp.72-80, Virginia: The council for exceptional children, 1986.
- [3] I. M. Voeltz, “Children’s attitudes toward disabled peers,” *American Journal of Mental Deficiency*, Vol.86, No.2, pp.455-464, 1980.
- [4] B. G. Esposito and E. W. J. Peach, “Changing attitudes of Preschool Children toward Handicapped Persons,” *Exceptional Children*, Vol.49, No.4, pp.361-363, 1983.
- [5] N. Peterson, “Social integration of handicapped and nonhandicapped preschoolers: A study of playmate preferences,”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Vol.2, No.2, pp.56-69, 1982.
- [6] 민천식, 박경애, “통합놀이가 일반아동의 장애아동 수용태도에 미치는 효과”, *통합교육연구*, 제1권, 제2호, pp.55-73, 2006.
- [7] 신순자, 박정민, 강삼성, “장애이해교육과 장애체험활동이 초등학생의 장애인식 및 장애수용태도에 미치는 효과 차이 분석”,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제49권, 제3호, pp.171-197, 2012.
- [8] 박창호, *태도교육*, 교학사, 1982.
- [9] 김상호, *현대심리학 입문*, 정민사, 1997.
- [10] 김미경, 이은영, “초등학교 통합학급 비장애아동의 자아개념과 장애아동 수용태도에 관한 연구”, *발달장애연구*, 제12권, 제2호, pp.155-174, 2008.
- [11] 이상애, 김성애, “장애이해 교육활동을 통한 일반유아의 장애 인식 및 태도 변화”, *유아특수교육연구*, 제4권, 제2호, pp.113-136, 2004.
- [12] 신순자, *장애이해교육과 장애체험활동이 초등학생의 장애 인식 및 수용태도에 미치는 효과 차이 분석*, 대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13] 변찬석, 박미애, “장애이해프로그램이 비장애아동의 자아개념과 장애아동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제6권, 제1호, pp.353-367, 2005.

[14] 우혜숙, 최상배, 안성우, 김미경, “장애이해 프로그램이 일반아동의 장애아동 수용태도와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제5권, 제4호, pp.515-530, 2004.

[15] A. L. Lazer, J. T. Gensley, and B. E. Orpet, “Changing attitudes of young mentally gifted children toward handicapped person,” *Exceptional Children*, Vol.37, pp.600-602, 1971.

[16] G. C. Clore and K. M. Jeffery, “Emotional role playing attitude change, and attraction toward a disabled pers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23, pp.105-111, 1972.

[17] S. R. Bookbinder, “Mainstreaming: What every child needs to know about disabilities Providence,” RI: The Rhode island Easter Seal Society, 1978.

[18] E. Kelly, “Movies-A unique and effective tool for social educators,” *CEC Today*, Vol.3, No.8, p12, 1997.

[19] V. D. Westervelt and J. D. Mckinney, “Effects of film on nonhandicapped children’s attitudes toward handicapped children,” *Exceptional Children*, Vol.46, pp.294-296, 1980.

[20] 차수연, *장애아동에 대한 초등학교 비장애아동의 태도변화를 위한 중재전략간 효과성 비교*,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21] 박현숙, “경도장애학생의 완전통합을 위한 초등학교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일 분석”, 특수교육학연구, 제34권, 제1호, pp.1-29, 1999.

[22] J. Donaldson, “Changing attitudes toward handicapped person: A review and analysis of analysis of research,” *Exceptional Children*, Vol.46, No.7, pp.504-514, 1980.

[23] R. L. Simpson, “Modifying the attitudes of regular class students toward the handicapped,” *Focus on Exceptional Children*, Vol.13, pp.1-11, 1980.

[24] 문진아, *장애이해 프로그램이 일반아동의 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저 자 소 개

유 용 식(Yong-Shik Yoo)

정회원



- 2003년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2007년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관심분야> : 사회복지, 노인복지, 지역복지, 다문화

권 순 신(Sun-Sin Kwon)

정회원



- 2007년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사)
- 2013년 :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 재활사업팀 주임

<관심분야> : 장애인복지, 장애인재활